

4차산업혁명

외피의 카피를 넘어 심층적 문화
혁신을 향해

- Homo Culturalis의 출현과 Concreative Cultural Economy를 향한 혁신-

이종관(성대 철학과&미래인문학연계전공 교수)

포스트휴먼이 온다

이종관 저음



인공지능과
인간의 미래에 대한
철학적 성찰

사월의책

순서

I. 미래에 대한 철학적 성찰

II. 4차산업 혁명: Trend와 문제점

III. 일이란 무엇인가:일, 삶, 그리고 미래의 시간성

IV. 독일 4차산업 혁명: 인본적 비전과 철학

V. 4차 산업 혁명의 NEW VISION

: Homo Culturalis와 Concreative Cultural Economy

1. 미래에 대한 철학적 성찰

인간의 미래,

어디로 가고 있으며

어디로 가야 하는가?

미래란?

*Trend?
or
*Vision?

- 미래는 따라가는 시간이 아니라 앞서가는 시간
- 희망과 기대를 품는 인간에게만 미래란 시간은 존재한다.
- 물체, 기계, 동물,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미래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.

미래 인간의 세가지 모습

❁ 1) AI의 아바타

❁ 2) 인공지능을 이식한 Immortal Posthuma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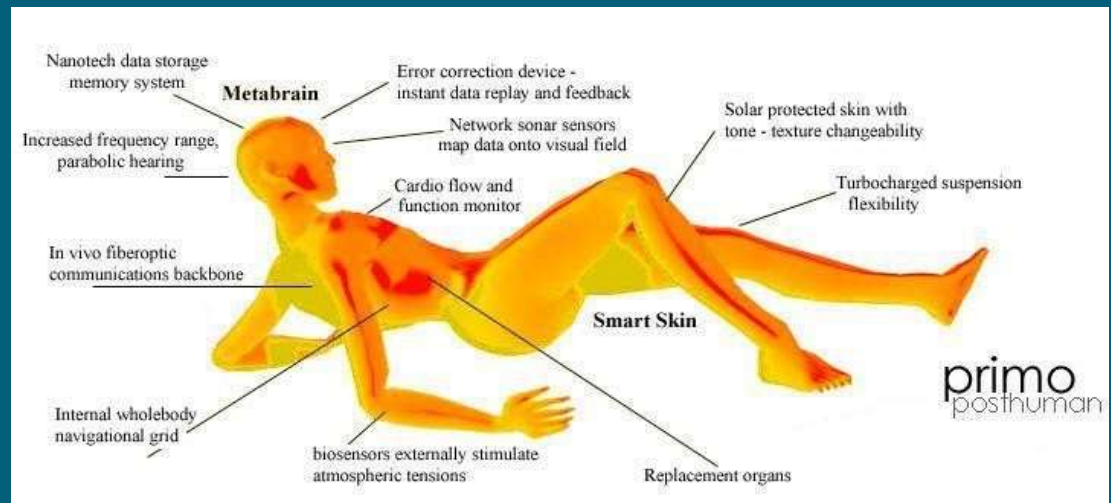
❁ 3) 죽음을 인정하면서 본래적 자신을 향해 사는 존재

1. AI의 아바타



2.인공지능을 이식한 Immortal Posthuma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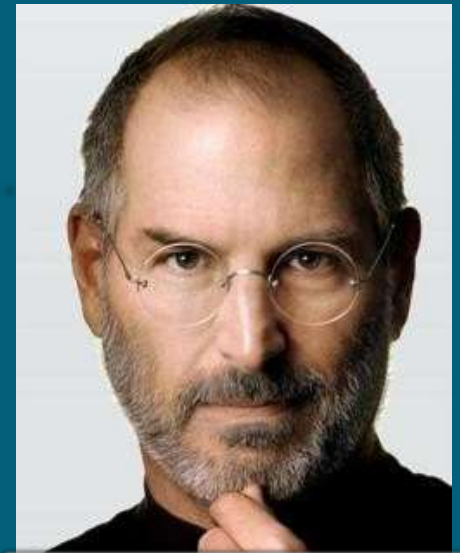
Augmented Humanity : Immortal Transhuman



3. 죽음을 인정하면서 본래적 자신을 향해 사는 존재

죽음은 우리모두의 숙명이다.
아무도 피할 수 없다. 그
리고 그래야만 한다.

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'죽음'이니까. 죽
음' 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나가고, 오직 진실로 중요
한 것들 만이 남기 때문이다.-2005'



Steve Jobs

인간만이 죽을 운명의 존재자이다.
다른 것은 다만 소멸할 뿐..

죽음을 미리 앞서서 깨달으면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
되고 본래적으로 존재한다.-1927'



두 가지 미래 비전

Transhumanism

Neohumanism



- 테크노퓨처리즘에 입각해,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존재를 질적으로 혁신한다는 과학기술 결정론적 입장

- 첨단과학기술을 통한 인간 성능증강과 개조: 인간이후의 존재자 출현- 영생하는 Transhuman

- 몸의 존재론적 의미 상실 (신체의 우연화)

- 정보의 장애 없는 투과
- 속성의 공학

- 인간의 실존적-존재론적 허무화에 직면하여 인간존재의 의미를 재확보하려는 사상적 움직임

- 인간의 유한성, 또 근대이성에 의해 비합리적 부분을 치부되던 인간의 다른 측면들에 대한 새로운 성찰

- 자연적 몸의 의미 재발견
- 속성의 미학



현대인의 상황

디지털화의 추동력과 저지선에 따른
의식과 행동의 반응양상



D.C.를 추동하는 힘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힘 사이의 역학적 관계 사이에서 다양한 양상을 가진 스펙트럼적 반응들이 공존

Trans
Humanis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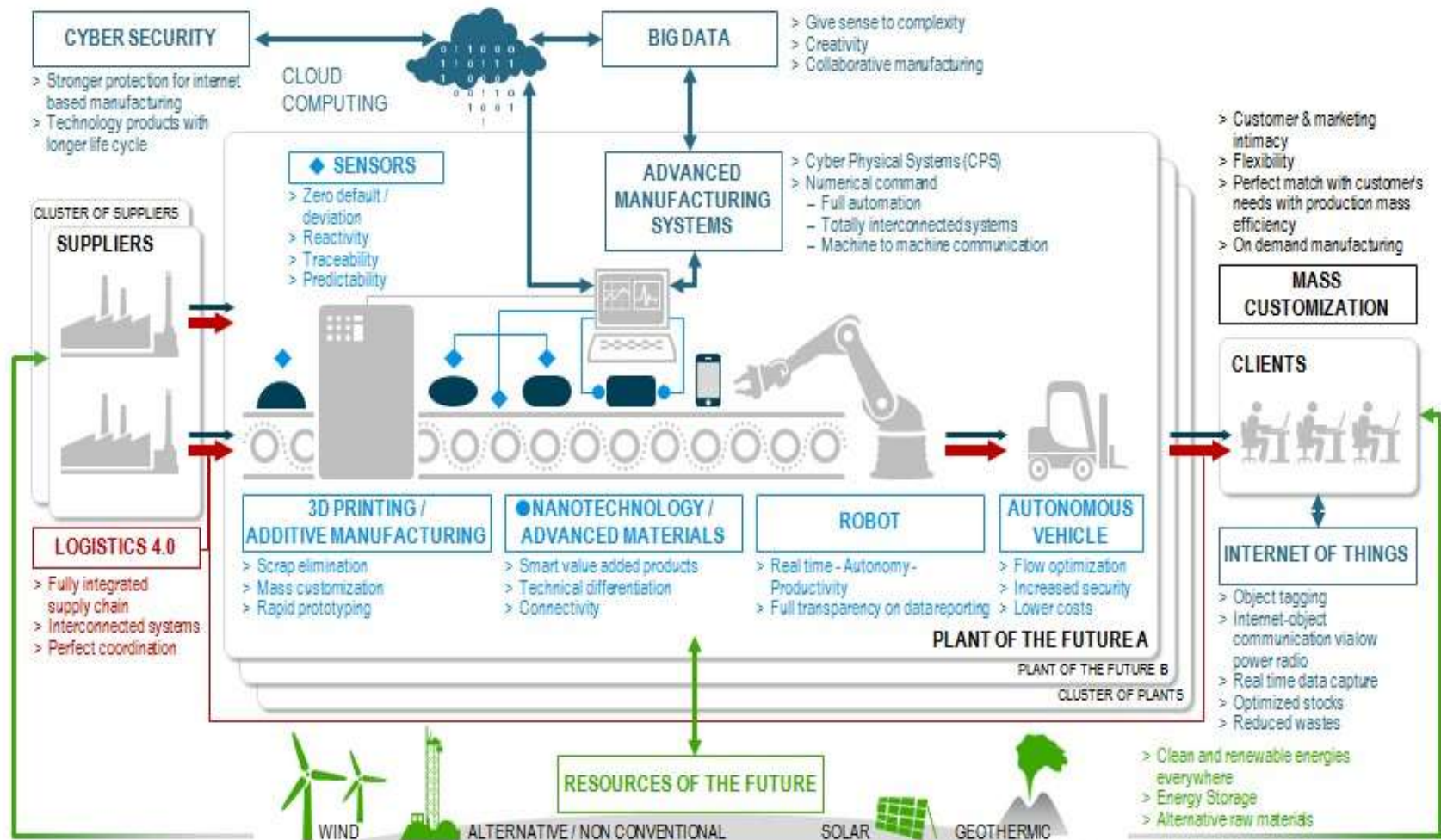
Neo
Humanism

기술의 발전이 인간 조건을
혁신시켜 나갈 것이다!

이제 보다 인간적인 것이
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다!

II. 4차산업 혁명 : Trend와 문제점

The Industry 4.0 ecosystem



4차산업혁명의 혁명성

❁ 4차산업 혁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두뇌는 인공지능이 될 전망

❁ 4차혁명의 현재 기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미래에 정향되어 있음

Technological Unemployment의 Risk

미래 일자리 Risk 논란

- ❁ 1)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
- No Problem
- ❁ 2) 일자리가 이동한다-서비스 영역으로
- 구직과 실직의 악순환?-Gigeconomy
- Precariatization
- ❁ 3) 새로운 기술에 의해 없어지는 일자리 만큼
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-일자리 감소
-Workless Society로 향하는 4차산업혁명?

기술적 실업의 전조?

- ❁ 90년대 초 제조업 경제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회사들은 140만에 달하는 인원을 고용
- ❁ 4차 산업 혁명의 발화지역인 실리콘 벨리에 고용된 인원은 14만에 불과.
- ❁ **Labour - McKinsey 58%**
of jobs automated

Risk관리-

사전예방원칙(Precautionary Principle)

- ❁ 현대 첨단기술-noumenal technology(불가지 기술)-기술의 파장 예측 인간 인식능력 초월
- ❁ 위험의 파급효과가 매우 높고, 비가역적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험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
- ❁ 기존 위험정책은 위험이 증명되기 전까지 안전하다는 개념에 기초
- ❁ 사전예방원칙은 위험의 안전성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위험하다는 입장
- ❁ 최악을 피하라!!!-

AI가 주도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물어야 할 근원적 물음

인간의 몸, 삶, 일, 기술은
어떤 관계에 있는가?

III. 일이란 무엇인가

-일, 삶, 그리고 미래의 시간성-

물어야 할 문제

❁ 앞으로 AI와 로봇의 발전으로 미래는 일없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짙어짐

❁ 따라서 물어야 할 문제

❁ 인간에게 일이란 무엇인가?

❁ AI & Automation
일로부터 해방 or 추방?

몸 과 일-

직접적인 깨달음의 근원
행복의 근원

❁ 인간이 몸으로 하는 일은 사색의 근본적 형식이자 세상을 유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깨닫는 길이다.

❁ 일 - 행복의 근원

인간-일 할 때 더 행복하다.

✿ 칙센트미하이의 연구

- 인간은 일이 없을 때보다 일을 할 때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, 행복해하고 또 성취감을 갖는다.
- 심지어 여가를 즐길 때 보다도 자신의 삶을 미래로 이끌어주는 적절한 일을 할 때 더 행복해 한다.
- 일: 단순히 먹이를 구하는 생물학적 행동이 아님
- 일: 인간 삶이 의미와 가치를 갖는 필수 조건

몸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가며 일 할 때
도구와 기술을 필요로 함



일없는 사회의 위험- 중독사회

- ❁ 일이 없는 자들에게 경제적 궁핍보다 더 심각한 사태는 - 미래가 없는 권태상태에 빠져 결국 중독자로 전락할 위험
- ❁ 중독은 어떤 바이러스나 물질적 궁핍이 원인인 병이 아니다.
- ❁ 중독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발생하는 인간에게만 독특한 시간적 질병이다.

중독의 원인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

❁ 중독의 원인의 물리적인 것이라면?

❁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이 게임중독의 원인이라면

❁ 그리하여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면 중독에 걸린다면?

❁ 그러나 하루종일 게임을 해도 중독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.

중독이란 무엇인가

- ❁ 중독은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라는 시간과 관계가 절연된 상황, 즉 절망적 상황에서 생겨난다.
- ❁ 미래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 있는 인간은 현재의 시간이 미래로 흐르지 않는 권태상태에 빠지게 된다.

❁ 때문에 현재와 같은 맹목적 기술적 효율성에 집착하여 인간을 일자리에서 몰아내는 미래의 포스트휴먼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.

❁ 아무리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은 기술이라 할지라도
그것이 인간에게 일을 박탈하는 기술이라면,

❁ 사회는 중독의 늪으로 침몰하여 붕괴위험에 처할
것이다

인간만이 일한다. AI는 다만 작동할 뿐...

- 인간이 일하기 때문에 AI를 필요로 하는 것
- 일은 인간 공동체를 미래로 향하게 하는 육화된 실천

-
- 자동화는 작업의 정밀성과 경제성 제고
작업자의 훈련 필요성과 업무부담 축소를 위해 개발
 - 이목적은 인간 개입의 최소화 더 나아가 인간의 개입을 제거하는 시스템의 개발 목적으로 비화
 -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인간적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 설계 추진

David Meister-인간공학 창시자의 발언

✿ 기술발전의 경로는 이윤추구의 동기와 밀착

✿ 인간은 안중에도 없다.

인공지능- 일로부터 인간을 추방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아니라 일과 인간의 조율자로 발전해야 한다.

- 미래의 기술은 인간과 삶, 그리고 몸과 함께 협력하며 몸의 생동적 참여를 통해 미래를 향한 인간 삶의 성취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- 이러한 관점에서 눈여겨볼 가치가 있는 기술이 적응형 자동화(adaptive automation)
- 적응형 자동화는 인공지능에 의한 완전자동화와 같이 인간을 일로부터 추방하는 것이 아님

미래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명

-인공지능의 사명:

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친 인간적으로 조율.

즉 기계에 설치된 인공지능이 그 기계로 작업하는 인간의 일하는 방식을 모니터하다가 과업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개입하여 힘든 일을 대신 처리해 주거나 기계의 작동방식을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조정

- 이렇게 하면 인간은 과부하에 걸리거나 기계에 또 다른 부품으로 종속되지 않고 몰입을 지속하며 삶을 성취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일을 계속할 수 있음.

기술중심 VS 인간중심

Airbus vs Boeing

- ✿ 기술중심적 접근과 인간중심적 접근이 대비되는 대표적 사례:에어버스와 보잉의 조정실 디자인
- ✿ 에어버스는 조종사의 역할을 컴퓨터 조작자로 변신시켰으며 위기상황에서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통제권을 갖도록 설계
- ✿ 반면 보잉은 전통적인 조정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거의 기계식 조종시스템과 같이 몸(촉감)으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여 위기시 통제권은 조종사에게 부여한다

인간존중 4차산업 혁명의 Humanistic Turn

- ❁ 일자리는 기술발전에 의해만 아니라 일이 어떻게 정의되고 분배되고 평가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.
- ❁ 몸으로 성취하는 일은 세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며 체험하는 깨달음의 근간이다.
- ❁ 미래를 향한 기술 발전의 최우선 목표는 인간에게 몸과 함께 삶의 성취를 제공하는 '일'을 만들어내는 기술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.
- ❁ 일이 노역이 되지 인간에 적합한 일이 되도록 일과 인간을 중재하는 기술의 개발(Adaptive Automation, Cobot etc.)

존재방식(Mode of Being)의 구별 필요성

- ❁ 물체-(외부 원인이나 힘에 의해) 운동-공간
- ❁ 기계-(설계에 따른 부품들의 체계적) 작동-공장
- ❁ 동물-생존-(생존 충동에 따른) 행동-환경
- ❁ 인간-실존-(삶의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 미래를 향해 일하는 존재) 처신-풍경
- ❁ 인간은 자신의 삶이 살아야 할 의미가 분명하다면 어떠한 고난도 견디어 낸다.(니체)

인간은 자신이다. 자신이 있는 인간만이 창조적이다.

- 모든 인간은 무엇과도 또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.
- 때문에 인간에게는 늘 자신의 존재가 문제가 된다
- 그의 존재에서 자신의 존재가 문제가 되는 동물, 즉 인간만이 죽고, 노동하고, 투쟁하고, 사랑하고 놀 수 있다.(Oase 19)
- 인간은 자연 속에 들어 있는 자유이다.
자유로운 존재만이 창조적이며 자유로운 존재들은 모두가 창조적이다
-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 보다 스마트하지 못하다
- Creativity is Concreativity

Concreative Organization을 향한 Leader의 인식전환

- ❁ 참여자 개개인을 나름대로 고유한 창의력을 갖고 있는 **잠재적 천재**로 인정한다.
- ❁ 협력은 개인들을 자신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생각에 노출시키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생각을 연결시키며 생각의 핵심을 변형시켜 새로운 생각으로 창조한다.
- ❁ 참여자간의 서열화를 조장하지 말고 수평적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한다.
- ❁ 창의성은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자신이 하는 일이 즐거울 때, 인간은 보다 창의적이다. 따라서 **일과 놀이 그리고 행복이 서로 선순환하는 있는 환경을 조성**해야 한다.

Concreative 조직 형성을 위해 Leader가 실현시켜야 할 원리

- ❁ (1) 자율성의 원리 : 협력적 관계에 놓인 사람들, 혹은 협력적 조직 체에 속한 사람들은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자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. 이는 협력이 개개인의 잠재적 역량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이질적 능력들이 자유롭게 표출되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합류하는 과정을 지향하기 때문이다. 이러한 점에서 협력은 참여자들이 동질화되는 협동과 구별된다.
- ❁ (2) 상호 호혜성의 원리 : 경쟁에서 추구되는 이기적 이익과는 다른 상호적 이익이야말로 협력이 성공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. 이는 일종의 상호의존임과 동시에 일종의 상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.
- ❁ (3) 신뢰의 원리: 신뢰는 협력이 유지되기 위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. 참여자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, 참여자들 각각이 자신의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, 타자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.

Concreative Organization을 향한 운영원리의 전환

- ❁ 경쟁력 강화에서 협력 증진으로
- ❁ 생산성 증가에서 창의성 진작으로
- ❁ 성장경제에서 성취경제로
- ❁ 선택과 집중의 차별 전략에서 포용과 다양성의 생태계 조성으로
- ❁ 평가서열화에서 진단 및 치유로
- ❁ 고용 피고용 관계를 파트너십 관계로

IV. 독일 4차산업 혁명

∴ 인본적 비전과 철학

- 현황과 토양 -



1. 미래의 도래: 4차 산업혁명

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독일의 정부 Slogan

- ❁ **Wir machen Deutschland zusammen stark.**
(우리는 함께 독일을 강하게 만든다)
- ❁ **Solidarität und Gerechtigkeit, Zusammenhalt und Wohlstand schaffen wir nur gemeinsam.**
(연대와 정의, 협력과 복지는 오직 공동으로만 성취된다)

2. 독일 4차 산업 혁명 비전 특징

- Not Revolution for Technology, but Evolution for Human
- 기술의 급속한 맹목적 발전은 기술이 악용되는 사회를 출현시킬 위험. --- 국가 사회의 붕괴
- 기술이 선용되는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 더 중요
- Silicon Valley is not the one and only Model

(cont.)

- 4차산업의 기반인 Internet of Thing은 Internet of Human이 되어야 한다
- 4차산업 혁명은 결과가 아니라 더불어 기획해가는 과정이다
- 4차산업 혁명의 성공 동력: Concreativity
 - * 소통과 참여로 활성화되는 협력적 창의성(collaborative creativity)
 - * 창의성은 현장 노동자와 기술자의 숙련지식, 소비자의 의견과 지식, 연구자의 전문성, 경영자의 노하우, 정책의 기획과 실효성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에서 창발

3. Concreativity의 증진

1) 독일 시민사회와 디지털 소통양식 융화

- 지방자치가 발달한 독일 시민사회의 지역분권 시스템과 제4차 산업혁명의 분권화의 특성의 상호 조응과 Synergy효과
- 전후 생활양식화된 소통과 참여 문화가 디지털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활성화

3-1. Concreativity 증진의 두 축

- 1) 시민대화(Buerger Dialog) – 사회의 민주화
- 2) 사회적 동반자 관계(Soziale Partnerschaft)
– 일터의 민주화

2.4차산업 혁명의 토양

2-1. 4차산업 혁명과 독일 경제 번영의 견인차 : 사회적 시장경제

독일의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번영의 견인차: 사회적 시장
경제

사회적 시장경제와 인간관: Homo Economicus가 아니라
Homo Culturalis

사회적 시장경제의 최종 목적: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
를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과 그에 근거한 경제 성장(시장 자
본의 축적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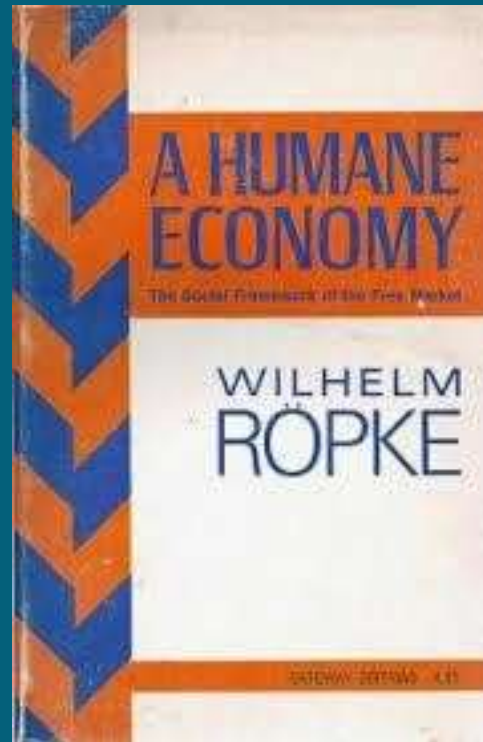
사회적 자본 확충의 핵심영역과 기저원리: 사회적 동반자
관계(Soziale Partnerschaft)

인본주의적 일 터 문화의 구현기제:
노사공동결정제(Mitbestimmun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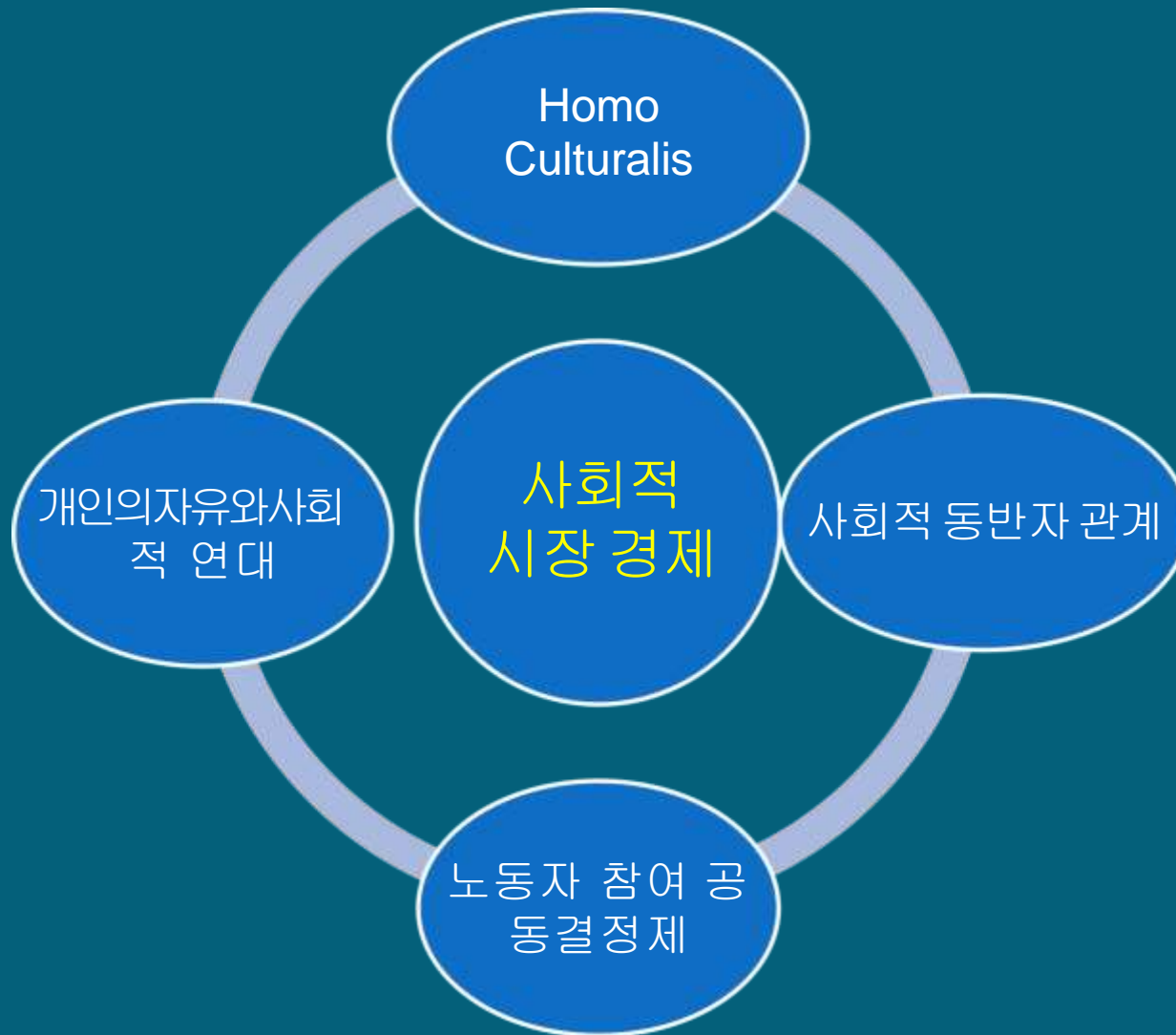
사회적 시장경제의 Ontology(존재론)

❁ “시장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지만 사회적 연대는 시장에서 형성되지 않는다.”

(Wilhelm Röpke)



사회적 시장 경제 구성 요소



사회적 시장경제 발전의 네 단계

→ 환경변화에 높은 적응력과 수정력을 보인 동적 경제체제

- 제 1기 (1948-1966):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철학인 질서자유주의 *(Ordoliberalismus) 확립기
(*질서자유주의: 일정한 경제적 질서와 최소한의 개입에 바탕한 경제 자유주의로서 영미의 (신)자유주의 경제와는 차별되는 독일형 시장경제 시스템)
- 제 2기 (1967-1982): 60년대 중반 이후 사회 내의 갈등과 분배투쟁, 경제정책 목표의 변화, 사회복지 강화 등 변화 분출기
- 제 3기 (1982-1989/90): 기민련(CDU)/기사연(CSU)로의 정권교체를 통한 시장경제의 재활성시기
- 제 4기 (1990-현재): 독일 통일을 계기로 사회복지국가 구축에 따른 사회복지 개혁기

2-2. 독일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 참여 역량 형성과정

전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구축과 신뢰의 회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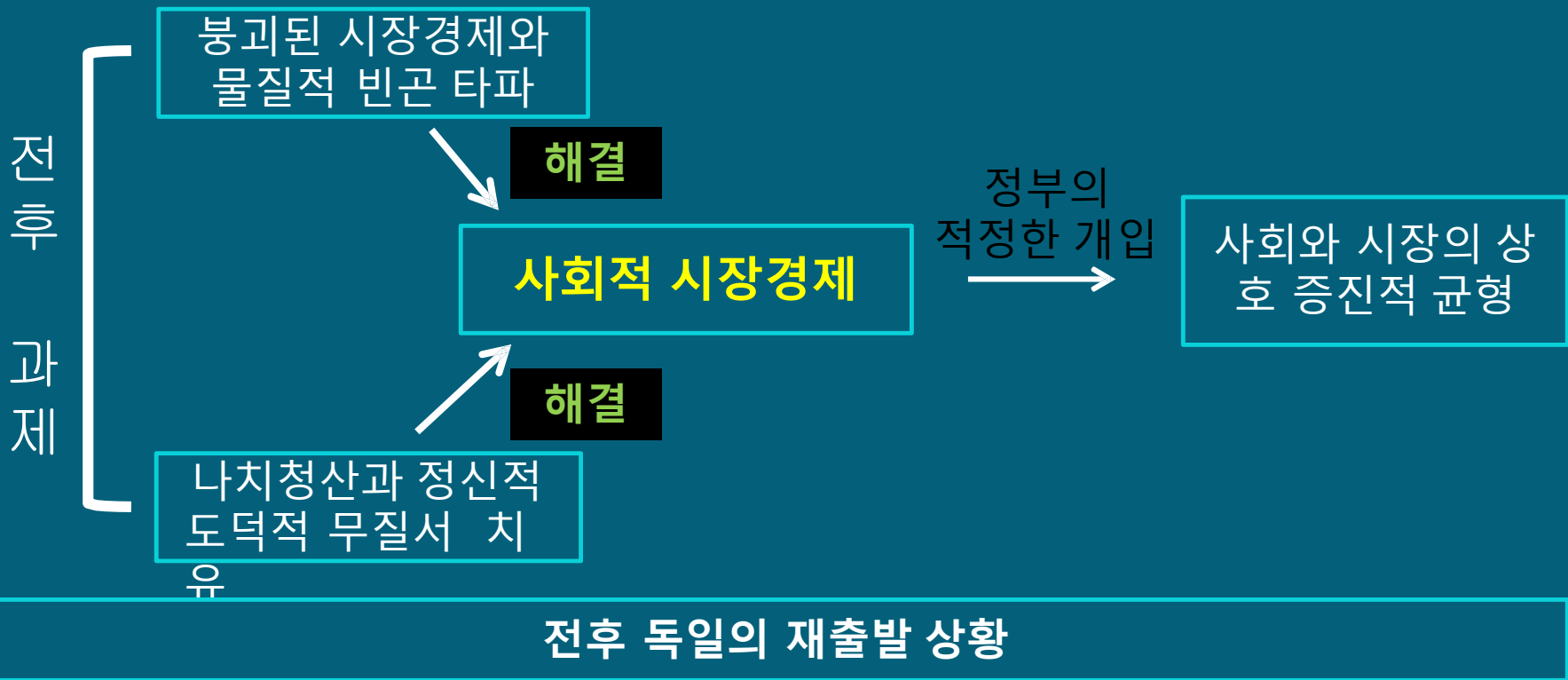
나치 과거청산과 신뢰구축-효율성과 무력에 기반
한 민족주의적 부국강병 신화의 반인륜성에 대한
철저한 반성

시민사회 형성과 헌법애국주의-민주헌법에 대한
충성고백

성인교육제도를 통한 지속적 민주주의 시민교육

공동결정제를 통한 사회 통합 구현과 동독사회주
의에 대한 체제 우위 확보

1. 전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구축과 신뢰의 회복



2-3. 시민사회의 이념: 헌법에국주의

1945년 이후 처음 서독에 민주적 시민사회 형성

- 나치에 의해 훼손된 민족주의를 대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대치물 필요
- 법치국가적 질서, 자유로운 문화 전반에 대한 일체감 등은 민주주의와 그 효율성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짐
- 민족과 영토 중심의 전통적 애국주의 청산 및 민주주의와 독일연방공화국 체제를 수호하는 헌법에 시민적 충성을 고백하는 애국주의 탄생.

2-4. 노동문제의 해결을 통한 신뢰확대

- '사회적 파트너십'

- 1951/52 – 석탄과 제철산업에 노사 공동결정제도 (Mitbestimmung) 도입
- 1976 – 1천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기업으로 '공동결정제도' 확대
 - 노사 협의체제 구축을 통한 신뢰 확대
- 1952 – 공장 내 '노동자평의회 (Betriebsräte)' 설치
 - 단일 공장 내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로 구성
 - 사내 노동문제 해결의 창구로 활용

공동 결정제의 긍정적 효과

- 독일 경영자의 80% 경영에 도움 인정
- 노사쟁의 발생 국가간 비교 최저

1. Sozialpartnerschaft Arbeitskämpfe im internationalen Vergleich



V. 4차 산업 혁명의

NEW VISION:

Homo Culturalis의 출현과
Concreative Cultural Economy

1. 기업차원 2. 정부차원

1. 기업차원

- ❁ 4차산업 혁명은 기술을 위한 혁명이 아니라 **인간과 사회를 위한 진화**로 진행되어야 함
- ❁ 미래 경제를 향한 성찰적 화두: 우리회사는 과연 인간을 사용자나 소비자로 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들이 일하는 조직인가?
- ❁ 문화의 상품화가 아니라 **상품의 문화화**: 인간(Homo Culturalis)을 소비자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구조조정



- 상품은 소비재가 아니라 문화재이다

- 소비자는 상품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
상품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는 인간이다

상품의 문화화

‘소비재’로서의 상품과 ‘장식’으로서의 디자인 **지양**



인간 삶의 의미(Sign)를 밝혀내는(De) 디자인(De-Sign)



각 문화권의 숙성된 인간 삶의 미학에 대한 성찰 및 그 본질적
요소를 제품에 구현



일상 문화재의 ... 범용 미학
탄생



無印良品

무인양품: 무(無)의 의미(sign)를 디자인(De-sign)

하는 혁신적 사유

- 동양 도가 철학에서 속성된 인간 삶의 미학(무위의
간결과 고요)을 구현

Harley Davison

- 모터사이클의 엔진은 내연기관이 아니라
모터사이클의 영혼이다 -

1. 기업차원

- ※ 상호존중에 근거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동반자관계를 제고하는 직장 문화
 - 1) 피고용인으로서의 열등의식 및 복종심 주입 탈피: 속성의 미학을 체현하는
장인으로서 긍지에 찬 노동의식 고양 및 고취: Harley Davison의 사례참조
 - 2) 조직 발전의 실질적 주체로 인정과 동시에 책임감 고취
 - 3) 우리나라에 적합한 동반자 관계 형성 기제 도입 노
사 공동결정제? Or 성과 공유제? 아니면 둘 다?
- ※ 첨단 기술 도입의 목적 재정립: 구성원간의 Concreativity의 활성화를 위해
 - 완전자동화를 목적으로 한 인공지능 개발에서 적응형 자동화와 같은 개념으로 인공지능 개발
 - Robot에서 Cobot로

2. 정부차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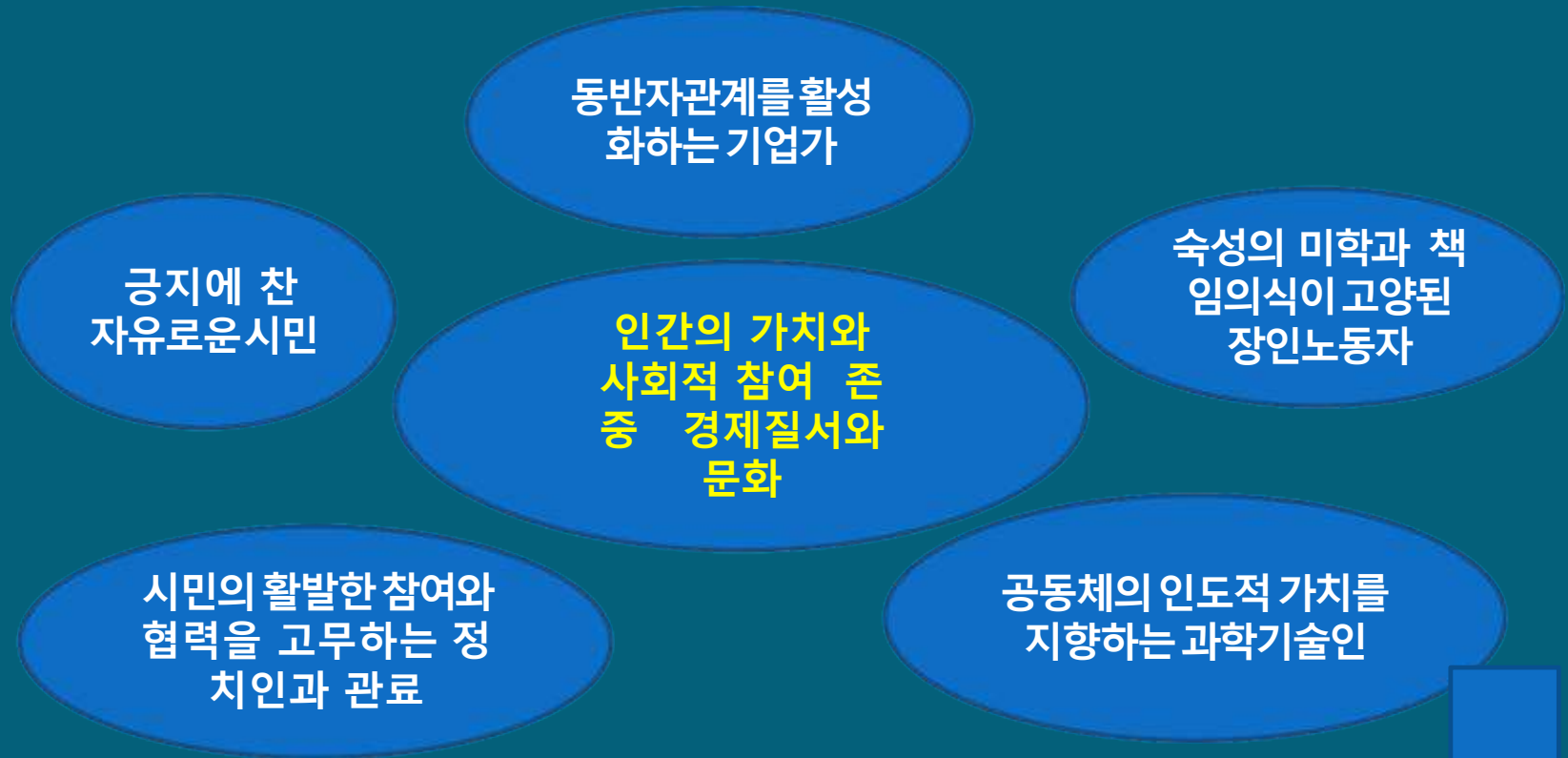
❁ 정책 기획 및 제도를 2원적으로 구상

- Concreative democratic economy의 토양 마련 정책 및 제도
-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정책 제도

❁ 토양마련 정책

-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와 재교육 권리화:
- 사회적 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경쟁 및 서열화 기제 식별하여 과감히 개선
- 상호존중에 근거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동반자관계를 제고하는 학교와 직장 문화 창조
- Concreativity 증진을 위한 교육혁신
- **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부처 설치**
- **첨단기술 개발방향 재조정: 첨단 기술을 서로 협력하며 창조하는 장인 노동자들의 협력을 조력하는 기능에 최적화되도록 개발**
- AI&Human Interaction에 초점을 맞춘 AI 연구개발,
- Adaptive Automation, Cobot 중심의 Smart Factory 플랫폼 연구 개발 및 도입 지원 정책)

Concreative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cultural economy의 기반구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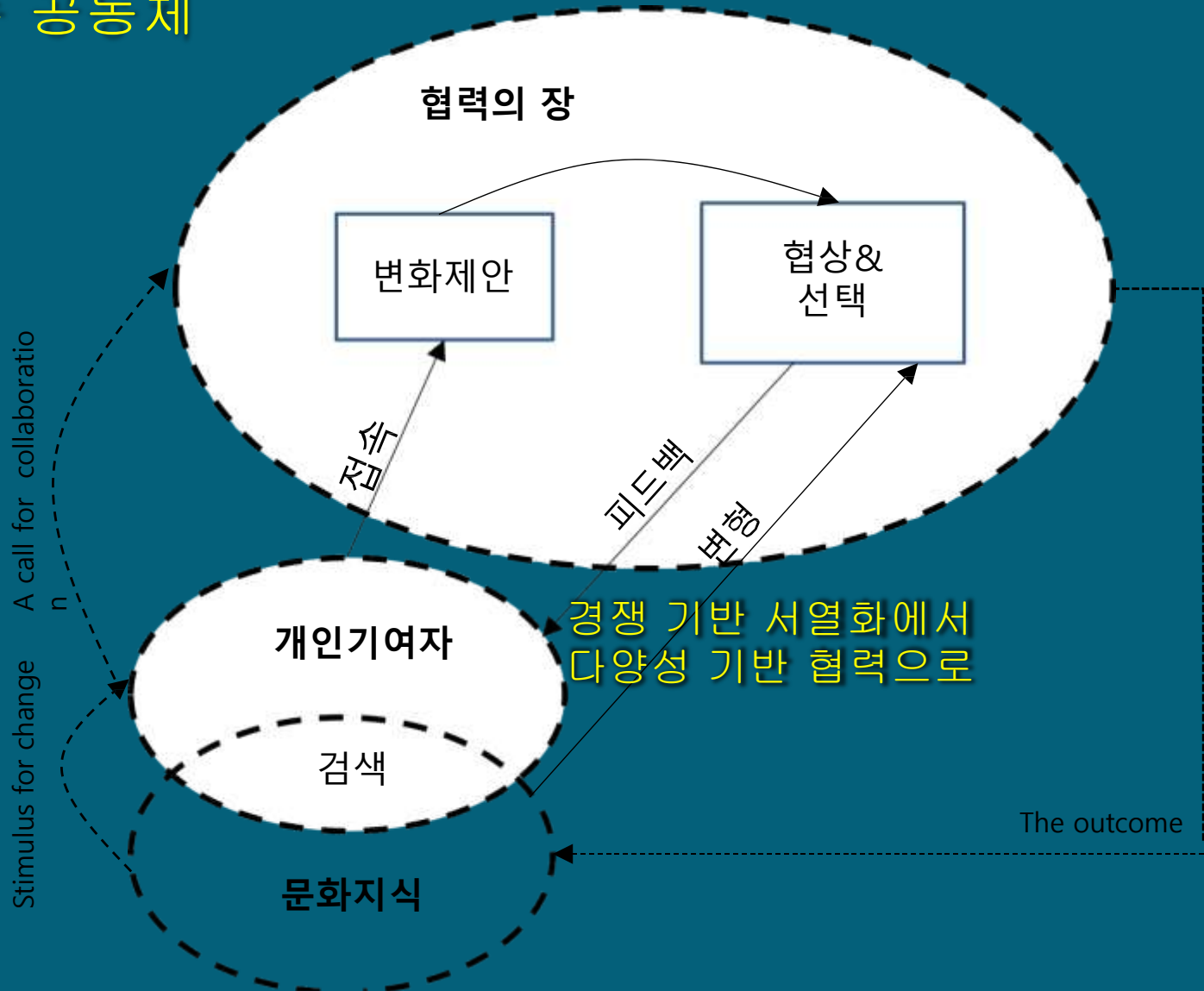


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윤리와 정신적 질서를 구축하는 정치 행정 시스템

미래를 향한 Concreativity

증진 조직 모형

Concreative democracy를 계승한 디지털 참여 민주 공동체





갈 끝 모르는 길을 가는 자들,
그들이 남긴 흔적에서
길은 창조된다.

감사합니다
